

漢字의 文化的 考察

鄭 鎮 攄

目 次

- I. 머리말
- II. 漢字에 對한 傳統的 觀念
- III. 漢字의 構成 原則
- IV. 漢字 字體의 歷史的 發展
- V. 漢字의 文化的 特質
- VI. 맺음말

I. 머리말

言語의 발생은 찬란한 人類文化的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言語와 文化는 상호 공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言語는 文化의 發生·發展의 중요한 요소이며, 文化의 발전 또한 言語의 풍부함과 세밀함을 더욱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言語와 文化가 상호 촉진·협력의 관계에 있지만, 言語의 형식과 文化의 樣相은 기본적으로 平行 발전의 관계이지, 결코 상호 제약의 필연 관계는 아닌 것이다. 즉, 어떤 社會에 어떤 文化 현상의 출현이 그 社會의 言語의 형식을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言語의 출현 또한 文化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人文大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그런데, 言語는 두 가지 면에서 결합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時間的 제약성이고, 또 하나는 空間的 제약성이다. 言語는 인간의 정교한 발음 기관을 통하여 나타난 音聲을 一次的 매개체로 삼아 의미·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극히 瞬間的이며 可變的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원형의 再構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言語는 미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일정한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이를 대신할 文字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言語의 書寫體系가 文字이기는 하나, 言語와 文字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설사 그것이 音聲에 따라 言語를 그대로 표기해 놓은 表音文字라 할지라도 일단 文字化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音聲보다는 意味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表意文字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中國의 漢字는 현존하는 表意文字의 대표격이라 할 만하다는 데에서 言語와의 괴리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겠다. 漢字는 表意文字이기 때문에 글자마다 고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漢字 역시 言語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表音的인 요소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漢字는 저마다 일정한 모양과 발음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 형태의 漢字는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은 漢字만이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특한 書寫體系인 漢字는, 중국인에 의해 창조된 중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漢字는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세포이며, 또한 중국 문화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筆者는 中國 문화의 기본적인 인식은, 우선 漢字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의도에서, 漢字에 대한 중국인의 傳統的 觀念은 무엇이며, 독특한 書寫符號인 漢字의 구성 원칙은 무엇인지, 또한 漢字 字體의 歷史的 발전의 추세는 어떠하였으며, 漢字의 特質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漢字에 대한 傳統的 觀念

漢字의 起源과 發展에 관한 傳統的인 견해는, 中國의 古代 文獻을 근거로 「結繩」·「畫卦」·「刻契」·「河圖洛書」·「甲子」·「史皇作圖와 倉頡作書」 등의 여섯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중 「結繩」·「畫卦」·「倉頡作書」 등이 비교적 正統的인 견해일 뿐, 기타의 것들은 古代 典籍에서 다만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본 절에서 필자의 의도는 漢字 起源에 관한 諸문제를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古代 中國人의 漢字에 대한 傳統的인 基本 觀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周易·繫辭下傳·第二章》에 이르기를..

옛날에 包犧氏가 왕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에 위로는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아래로는 땅의 법칙을 관찰하였고, 또 鳥獸의 무늬와 땅의 조건 등을 관찰하였다. 가까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형상을 취하였고 먼 것은 만물에서 형상을 취하여서 八卦를 만들었고, 이것으로 신의 덕을 깨우치고 만물의 정황을 분류하였다.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周易·繫辭下傳·第二章》에 또 이르기를..

上古시대에는 結繩으로 다스렸고, 후세의 성인들은 書契로 바꾸어 다스렸으며, 百官도 治理에 書契를 이용하였고, 萬民 또한 書契로써 모든 사물을 관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괏에서 그 형상을 취하였다. (上古結繩爲治, 後世 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爻.)

사실상 이상의 인용문이 古代 中國人들의 文字 發展과 文字와 文化

의 관계에 대한 가장 正統的인 견해이다. 中國 文字學 연구의 始祖라 할 수 있는 東漢의 許慎도, 그가 지은 《說文解字·敘》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觀念을 繼承하고 있다. 《周易·繫辭傳》에는 단지 八卦를 만든 사람이 包犧氏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結繩과 書契의 창시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許慎에 이르러서는 神農氏와 黃帝의 史官 倉頡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說文解字·敘》에 이르기를 ..

옛날에 包犧씨가 왕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는 위로는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아래로는 땅의 법칙을 관찰하였고, 또 鳥獸의 무늬와 땅의 조건 등을 관찰하였다. 가까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형상을 취하였고, 먼 것은 만물에서 형상을 취하여, 이로써 易의 八卦를 만들기 시작하여, 만물의 표준을 삼았다.

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으로 다스리고 記事하였는데, 큰 일은 매듭을 크게 하고 작은 일은 매듭을 작게 맺었다. 黃帝의 史官 倉頡은 땅 위에 새겨진 鳥獸의 발자국 흔적에서 點劃을 발견하고, 나누어지는 이치가 서로 다름을 알아내어, 처음으로 書契를 만들었다. 百官이 이로써 다스리고, 모든 사물을 이것으로써 관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結繩에서 형상을 취하였다.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結繩爲治, 而統其事; 庶業 其 興, 飾僞萌生, 黃帝之史倉頡見鳥獸蹏迹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百官以父, 萬品以察, 蓋取諸夫, …… .)

이상과 같이 《說文解字》에 의하면 包犧氏가 八卦時期를 선도하였고, 神農氏가 結繩時期를 개척하였으며, 倉頡이 書契時期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中國에서의 符號·文字의 初期的 發展 段階는 「八卦→結繩→書契」의 세 시기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書契는 文字의 別칭이다. 八卦·結繩의 용도도 文字와 마찬가지로 너무 간단해서 날로 복잡해지는 인류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文字(書

契)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以上の 여러 인용문을 통해 볼 때, 고대 중국인이 문자에 대한 기본 관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중국인의 符號·文字의 創製는 자연법칙에 대한 체득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과 「見鳥獸蹏遠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가 모두 천지 만물의 계시로 文字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자연법칙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天地」·「道」·「太極」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人類의 感官的인 認知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老子·第十四章》에 보이는 「視之不見」·「聽之不聞」·「搏之不得」이 그것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인들은 符號·文字의 제작은 천지 만물의 비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여겼다. 《周易·繫辭傳》에 보이는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도 이와 같은 관념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文」을 대단히 중시하였는데, 狹義의 「文」(符號·文字)이 바로 廣義의 「文」(文明·文化)을 전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夏鼐는 「一個文明的重要的標誌之一, 便是有了文字制度。」라고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說文解字·敘》에 「黃帝之史倉頡見鳥獸蹏遠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라는 구절 외에도, 중국 고대 전적에 倉頡이 文字를 창제했다는 설이 많다. 예를 들면, 《韓非子·五蠹篇》에는 「倉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私, 背私爲公」; 《呂氏春秋·君守篇》에는 「倉頡作書」; 《淮南子·本經篇》에는 「昔者倉頡作書, 而天雨粟, 鬼夜哭」 등의 구절이 보인다. 이런 까닭에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문자 창제의 공을 倉頡에게 돌린다.

그러나 文字의 발생은 文化 發展에 따라 점차 형성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文字는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만들어 졌지 어떤 개인이나 한 지역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古代에 이상과 같이 많은 說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倉頡가 文字를 정리한 적이 있거나, 書道에 능했기에 造字와 관계가 맺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 어쨌든 中國人의 觀念 속에는 造字의 功을 「天」과 「人」 그리고 「人」과 「人」을 연결시켜 주는 聖人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은 다른 여러 나라의 文字 기원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독특한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文化 體系 속에서 그들이 包犧·倉頡 등을 聖人으로 높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中國人의 人文 思想인 「天人合一」의 觀念 속에도, 사실상 「天」·「人」을 함께 존중하여, 그중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김이 없다. 이러한 觀念의 연장선상에서 聖人 倉頡에게 또한 造字의 功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Ⅲ. 漢字의 構成 原則

漢字가 시대와 더불어 수없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人智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연 나타내려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자꾸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원리나 체계도 없이 마구 생겨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통일된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 이러한 漢字의 구조를 처음으로 분석하고 해설한 字典이 東漢 許慎이 지은 《說文解字》이다. 許慎은 漢字의 構成 原則인 六書를 《周禮》에 근거²⁾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제 六書의 기본적인 내용을 《說文解字》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荀子》에 「好書者衆矣, 而倉頡獨傳者, 壹也」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 말이 비교적 유력하다.
- 2) 《周禮》에 「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班固의 《漢書·藝文志》; 鄭衆의 《周官解詁》 및 許慎의 《說文解字·敘》에 모두 이 六書를 여섯 가지의 造字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3-1. 象形

《說文解字·敍》에서 許慎은 象形에 대하여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라고 정의하였다. 象形の '象'은 '像'의 假借字이므로 象形은 곧 形을 본뜬다는 뜻이다. 그리고 '詰詘'은 屈曲의 뜻이므로 물체의 윤곽을 따라 屈曲의 線을 이용하여 그 물체의 형상을 그려내는 방법으로 日·月 등이 그 예이다. 象形字는 원래는 원시적 그림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처음에는 物體의 모양과 비슷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형체가 점차 간단하여져서 마침내 原事物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象形字는 비록 原事物의 형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지라도 최초로 글자를 만든 시대로 소급하여 올라가면 양자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현상·인체·동식물·도구류 등 우리 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많고, 《說文解字》에 실린 9353자의 漢字 중에 象形으로 간주되는 字數는 364자(4%)이다. 특히 漢字의 意味 分類 體系인 部首의 대부분이 象形字로 이루어져 있다.

3-2. 指事

《說文解字·敍》에서 許慎은 指事に 대하여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라고 정의하였다. 이른바 指事란 부호로서 事象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事'란 본래 본뜬 수 있는 구체적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추상적 부호를 사용하여 그 事의 상태를 지시하여 밝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호를 보고 그것의 事象을 식별할 수 있고, 그 부호를 관찰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뜻을 가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指事이다. 예를 들면 '上'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의 위에 있음을 지시하고, '下'는 이와 반대로 다른 사물의 아래에 있음을 지시한다. 결국 指事는 어떠한 관념, 상태 혹은 동작을 일정한 형체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說文解字》 중에는 125字(1%)의 指事字가 보이고 있다.

3-3. 會意

《說文解字·敘》에서 許慎은 會意에 대하여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會意란 「合誼」의 의미이다. 따라서 會意란 둘 혹은 그 이상의 字素가 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룬 것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능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比類合誼」란 곧二類, 三類 혹은 四類의 漢字를 차례로 배열·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字義를 합성한다는 뜻이요, 「以見指撝」란 새로이 합성된 字가 뜻하는 바 所向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武'字는 '止'와 '戈'의 두 개의 字素가 차례로 배합하여 '武'字의 新義를 이루었는데, 우리들은 이 글자에서 天下의 兵戈를 중지하고 亂動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武'字의 意向임을 알 수 있다. 또 '信'字는 '人'과 '言'이 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글자에서 사람이란 자기가 한 말은 기어이 실현할 수 있어야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意向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說文解字》에는 1167字(13%)의 會意字가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文字는 象形에 속하는데 그 뒤를 이어 指事·會意가 만들어 졌다. 象形이 묘사하는 것은 물체의 실상이며, 指事·會意가 초기에 나타냈던 것 역시 사물의 虛形이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廣義의 象形에 포함시킬 수 있다.

3-4. 形聲

《說文解字·敘》에서 許慎은 形聲에 대하여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以事爲名」이란 事物로써 字를 만든다는 뜻이니, 즉 事物은 形을 가리키고, 「取譬相聲」이란 언어 중에서 그 事物의 소리를 알린다는 뜻으로 곧 事物의 聲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江', '河'는 물의 뜻으로 '水'를 붙여 사물의 의미를 나

타내는 한편, 여기에 ‘工’, ‘可’를 취하여 사물의 소리를 알려 준다. 이 경우 聲符인 ‘工’, ‘可’의 발음이 ‘江’, ‘河’의 현대 발음과 같지 않으나, 이는 아마도 소리의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일 것이다. 즉 ‘江’, ‘河’字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聲符인 ‘工’, ‘可’와 ‘江’, ‘河’字의 발음이 일치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形符와 聲符를 조합하여 만든 漢字를 形聲字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會意·形聲 모두가 字素와 字素의 결합으로 형성된 合體字의 형식을 취하나, 會意가 “形形相益”이라면, 形聲은 “形聲相益”인 점이 다르다. 《說文解字》중 7697字(82%)가 形聲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의 세계에는 무한한 事物이 존재하고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지는 觀念도 헤아리기 어렵게 많다. 이에 따라 言語도 新生, 成長, 死滅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다. 이리하여 表意性을 특징으로 하는 漢字는 불가피하게 原義의 변천과 字數의 증가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象形은 오로지 사물을 大別하고, 指事는 다만 事의 개념을 지시하는데 그칠 뿐이다. 비록 會意는 象形이나 指事보다는 편리한 방법은 될지언정 역시 궁합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 의미를 나타내는 字素만의 결합을 통하여 그 속에 숨은 뜻을 표출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字數를 증가시키는 일은 자연히 聲音을 좇아 衍聲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六書·四體 가운데 形聲字가 가장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3-5. 轉注

《說文解字·敘》에서 許慎은 轉注에 대하여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建類一首」란 文字의 聲韻이 同一 語基에 속하며, 雙聲·疊韻 또는 同音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또 「同意相受」란 그 문자의 뜻이 서로 같아 상호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轉注란 語基와 意味는 서로 같으나 字形이 서로 다른 문자간의 轉相註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考', '老'의 경우 字形은 달라도 聲韻 면에서는 韻母가 같고 그 뜻이 같으므로 곧 轉注라고 한다.

文字란 비록 한 사람이 한 시대에 한 곳에서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각개의 문자로서 언어를 기록한다는 역할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언어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다름에 따라 문자 상호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語基와 意味는 같아도 字形이 相異한 文字가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어느 시대, 어느 지방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버리면, 이제 그 형체의 문자를 버릴 수 없게 되어 마침내 轉注의 방법으로써 서로를 통하게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3-6. 假借

《說文解字·敘》에서 許慎은 假借에 대하여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命長是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本無其字」란 언 어상으로 이미 낱말은 통용되고 있으나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의 형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依聲託事」란 그 언어를 기록할 때 소리가 같은 문자에 의존하여, 문자가 없는 의미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令'字는 본래 '發號'의 뜻이고, '長'字는 '久遠'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이미 造字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縣令이나 縣長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이를 기록할 특유의 문자는 없었다. 그런데 發號나 久遠의 뜻인 令·長과 縣令, 縣長이 同音이었으므로 漢나라 사람들은 縣令과 縣長에 대하여 새로이 문자를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의 令·長을 빌려 이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곧 假借이다. 그러므로 「本無其字」는 文字의 字形을 가리키는 말이고, 「依聲」이란 假借字의 소리를 가리키며, 「託事」란 假借字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다. 곧 漢字의 3要素인 形·音·義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한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假借는 어떠한 대상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본래의 문자가 아직 없는 관계로 소리가 같은 字를 빌려 의미를 依

託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원래 있었던 字라도 언어를 기록할 때 本來의 字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同音의 字로 써 이를 대체하는 수가 있었는데, 이 예도 역시 假借에 속한다. 심지어는 誤字, 別字를 쓴 것까지도 假借로 간주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假借의 변천 과정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漢字의 構成 原則인 六書의 기본적인 내용을 許慎의 《說文解字》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六書의 내용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大別하면, 「造字法」과 「用字法」이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明代의 楊慎은 《六書索隱》에서 「六書, 象形居其一, 象事居其二, 象意居其三, 象聲居其四, 假借者, 借此四者也; 轉注者, 注此四者也. 四象以爲經, 假借轉注以爲緯。」라고 하여 六書는 經·緯로 나뉘음을 제안하였다. 清代의 戴震은 이를 기초로 하여 六書를 「四體, 二用」으로 나눌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答江慎修論小學書》에서 「指事, 象形, 諧聲, 會意四者, 書之體止此矣; 由是之於用, 曰轉注, 曰假借, 所以用文字者, 斯其兩大端也。」라고 말한 내용이 그러하다. 六書에서 이른바 '體'란 문자의 구조 방법을 말하고, '用'이란 운용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六書란 결코 漢字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규정이 아니고, 漢字의 構造와 運用 方法을 귀납한 용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字의 造字·運用法은 여섯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六書의 條理가 정착되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 원리는 놀라운 바가 있다.

IV. 漢字 字體의 歷史的 發展

文字란 文化와 歷史를 전파하는 매개체이다. 만약 발전된 독특한 문자 체계가 없다면, 문화 역사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실상 힘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文字를 時空을 초월하는 文化的 媒介體로 규정

할 수 있다. 우리가 巨視的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의 많은 민족들이 창조한 각양각색의 文字는 사실상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듯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言語를 기록하는 符號 體系인 文字를 가지고 있다. 漢字는 바로 中國인이 만들어 현재까지 쓰고 있는 文字이다. 漢字가 출현한 정확한 시기를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1975년 陝西省 仰韶文化 遺跡地에서 발견된 陶器 위에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겨진 原始 文字를 漢字의 초기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숫자 표기 방식이 고대에 쓰였던 漢字와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漢字의 역사를 그 토기가 쓰여졌던 6500여년 전까지 올려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漢字는 거북이의 등이나 동물의 뼈에 새겨져 있는 甲骨文이다. 이러한 甲骨文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年 前인 商나라 시대에 쓰여졌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甲骨文은 3500여자에 달하는데, 이 글자들은 구성 면에서 陶器 위에 새겨져 있는 原始 文字보다 훨씬 발달된 文字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原始 文字로부터 상당히 발달된 형태의 甲骨文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仰韶文化 遺跡地에서 출토된 陶器위에 기호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특정한 사물을 기록한 특정한 의미의 기호로 여기고 있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傳說중에 보이는 「結繩記事」와 「刻木記事」가 「圖畫 文字」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보이는 過渡期的 문자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漢字의 起源을 위의 原始 文字에서 찾는다면, 이는 中國 文字의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象形文字에 비해서도 무려 1500이나 앞선, 사실상 세계 최초의 문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원시 문자들을 하나의 완전한 문자로서 추정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年代學的으로 가장 이른 문자인 甲骨文을 漢字의 始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甲骨文·金文·篆書·大篆·小篆·隸書·草書·行書 등의 대표적인 漢字 字體의 변화·발전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商·殷代 字體

殷代의 대표적인 字體인 甲骨文은 주로 龜甲이나 獸骨에 새겨져 있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기록물들은 占卜的인 혹은 神託的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甲骨文의 절대다수는 殷代에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소량이기는 하지만 周代에 제작된 甲骨文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청동기의 銘文을 金文(혹은 鍾鼎文)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殷代 후기 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殷代에 제작된 청동기 銘文들은 일반적으로 단지 몇 글자로 구성된 매우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金文의 字體는 그 원류가 甲骨文과 같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 甲骨文은 몇 가지 종류의 날카로운 연장들을 사용하여 딱딱한 거북이 등이나 동물의 뼈에 새겼기 때문에 획의 모서리가 더욱 예리하고 직선화된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金文은 여전히 조잡하기는 하지만 동기를 주조하면서 문자를 함께 주조했기 때문에 중후한 인상을 받는다.

4-2. 西周 및 春秋時期的 字體

이 시기에는 靑銅器의 주조가 최고로 성행되었다. 상당수의 청동기들에는 장편의 銘文이 주조되어 있는데, 글자의 수가 수백 자에 달하는 것도 일부 있다. 西周 前期의 金文은 殷代의 청동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金文이 더욱 규칙적으로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획의 모서리가 더욱 날카로워지고 線이 보다 가늘어지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발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金文과 관련이 있는 또 한 종류의 字體, 즉 籀文(혹은 大篆)인데, 東漢때 許慎이 편찬한

《說文解字》에 따르면, 이것은 籀라는 이름을 가진 한 史官이 창안한 것이라고 한다. 이 字體의 기원에 대하여는 몇몇 異論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학설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西周때의 金文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4-3. 戰國時期的 字體

이 시기의 字體로는 우선, '六國古文'을 들 수 있는데, 戰國時期 중국의 동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여러 독립 국가들이 사용하던 문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많은 地域的 變移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 문자에 관한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발견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청동기 銘文을 위시하여 대나무쪽, 비단에 쓰여 있는 기록물들이 있다. 《說文解字》에는 籀文외에도 古文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字體가 인용되어 있다. 이것의 직접적인 來源은 漢나라 때 발견된 先秦時期的 기록물들로부터 따온 것이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秦代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秦代보다 앞서는 여러 가지 字體들과 비교해 본 결과 그것이 戰國時期的 동부 지역에서 사용되던 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六國古文은 漢字 字體의 변화·발전의 과정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形聲字가 대량 증가하여 漢字의 형체 상의 차이가 더욱 세밀해졌다. 예를 들면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많은 글자에 '邑'旁이 더해졌다. 둘째는 많은 簡化字가 출현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옥새, 도기, 화폐, 병기에 새겨진 낙관은 대다수가 조잡하고 급조된 簡化字이다.

戰國時期的 字體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小篆이라 할 수 있다. 小篆은 秦始皇이 문자를 통일할 때 채택한 字體이다. 위에서 언급한 大篆에 더 할 것은 더하고, 간소화할 것은 간소화한 후에 전국적으로 보급시켰고, 이와 동시에 당시 지역적인 異體字인 六國古文을 폐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글자가 小篆이다. 小篆은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규범화된 字體이다. 규범화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둥글고 균

형 잡힌 선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연하게 정리함으로써 漢字의 符號性을 확립하였다. 둘째, 원래 고정된 형식이 없었던 각종 偏旁의 형태를 통일하였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漢字에 각각의 偏旁의 위치를 확정하고, 임의로 이를 뒤바꿀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각각의 자형이 사용하는 偏旁을 한 종류로 고정시키고 다른 偏旁으로 대체할 수 없게 하였다. 쓰기의 필획수도 고정시켜서 기본적인 정형을 이루었다.

4-4. 漢代의 字體

秦代가 종말을 고하고 漢나라가 막 시작되던 때는 古文字가 점차 자취를 감추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던 시기이다. 秦代때는 단지 民用的인 사무용 서체(隸書)가 漢나라에 이르러 碑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용도에 채택됨으로써 정식 자체로 승격되었다. 西漢 初期까지만 해도 隸書는 여전히 秦代의 사무용 서체(隸書)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서는 隸書의 새로운 변형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小篆의 형태를 변화·발전시킴으로써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漢字의 字體가 비로소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篆書에서 변화된 隸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필획의 직선화 현상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간화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字體가 더욱 정형화되는 동시에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의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기는 하였지만, 상형문자적인 뿌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대적인 字體로부터 순수 관습적 字體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4-5. 漢代 以後의 字體

楷書(혹은 眞書·正書)는 隸書를 더 다듬은 字體이며, 標準字體로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楷書의 역사를 살펴보면 西漢에서 시작하여 東漢 말년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으며, 魏晉時代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이 字體는 隸書의 필획을 더 발전시켜, 필획을 더 직선화했으며, 漢字를 네모꼴 문자(方塊字)로 정형화시켰다. 漢字 字體가 楷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草書등과 같은 字體가 나타나게 된다. 草書는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싹트기 시작하였다. 조기의 草書體들은 隸書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후에 나온 草書體로써는 비교적 규범적인 章草와 이러한 章草를 계승한 것으로 楷書를 빠르게 쓴 것이 今草인데, 이는 東漢 末年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草書는 대부분 今草를 말하는데, 王羲之의 草書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今草의 특징은 그 이전의 草書體에 비하여, 하나로 연속된 筆劃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줄기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더욱 진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唐代에 이르러 이러한 今草를 기초로 하여 狂草가 생겨났다. 狂草는 임의로 필획을 증감하고 위아래의 글자를 이어 써서 글자를 알아보기가 특히 어렵다. 이러한 字體에 나타나고 있는 극도의 단순화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독하기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용성이 격감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楷書와 草書 사이에 또 하나의 字體, 즉 行書가 끼어들어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사실상, 行書는 대략 東漢 末年에 今草와 隸書가 성행했던 시기에 생겨났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楷書에 가까우나 변화의 신축성이 있고, 今草에 가까우나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는 한 글자 안의 필획은 연이어 있지만 각각의 글자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 사이가 분명하여 이해하기에 쉽고, 狂草처럼 이어서 씌으로써 글자 판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다. 이와 같은 行書는 唐代에는 楷書와 함께 상당히 유행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楷書의 補助 字體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특별히 行書는 자형이 뚜렷하여 알기 쉽고 書寫 효율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혹은 私信을 쓸 때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以上에서 漢字 字體의 發展을 歷史的 觀點에서 개술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대표적인 漢字의 字體로는 역시 甲骨文, 金文, 篆書, 大篆과 小篆, 隸書, 楷書, 草書, 行書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으며, 大體的인 字體의 沿變은 篆書에서 隸書로, 隸書에서 楷書로의 변화·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同時에 漢字 發展의 分명한 趨勢는 變잡한 것으로부터 간략화 된다는 것인데, 章草, 今草, 狂草, 行書 등의 字體는 事實上, 隸書가 楷書로의 변화·발전의 過程 中에서 派生되는 間接者로서 규정할 수 있으며, 本體者격인 篆書, 隸書, 楷書와 서로 보완적인 關係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漢字는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발전과정을 통하여 더욱 완벽한 체계와 네모 글자(方塊字)로서의 격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V. 漢字의 文化的 特質

漢字의 特質은 곧 中國文學이나 藝術의 特성과 性격을 같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中國 文化와 中國의 존재와도 宿命을 같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中國의 漢字가 만약 네모난 글자가 아니고 영어와 같은 알파벳의 서사 체계였다고 가정할 때 中國의 모든 文化 양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中國의 宿命적인 漢字는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을 안고 文學이란 대하를 일구어 온 주무기가 되었고, 藝術이란 성벽을 쌓아온 하나의 方法으로 성장해 왔다. 文學의 영토에는 비록 구속과 해방의 충돌을 오랫동안 대립시켜 왔지만, 예술엔 그가 지닌 독특한 형식의 美를 살려 하나의 道樂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漢字가 지니는 특성 때문이었다. 그 특성은 이미 宿命적으로 文化와 함께 토착되어 더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中國이 表意文字인 漢字를 表音文字化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오랫동안 연구와 시도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漢字가 지니는 토착적인 특성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中國이 文學혁명 은 가능했지만 문자 혁명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바로 漢字가 지닌

특질 때문인 것이다.³⁾

이제 漢字가 지니는 特質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성(시각적)과 음악성(청각적)을 포함한 예술성을 들 수 있다. 表音文字가 갖출 수 없는 형식미는 甲骨文으로부터 그 배열이 정제하고, 金文에도 그 行字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정중하고 엄숙한 美를 제공하고 있거니와 周代로부터 시작한 4·5·7言 등의 詩와 4·6변문을 통하여 미술상의 대칭미와 음악상의 조화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詩經》 첫 번째 작품인 〈關雎〉篇⁴⁾을 분석하여 보면, 시의 청각적·시각적 수사 효과를 높였으며, 그리고 제2장의 첫줄과 제3장의 첫줄·둘째줄이 모두 대구를 이루면서 의미상의 수사 기교도 아울러 발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은 《詩經》의 詩를 비롯하여 古體詩에 흔히 보이는 것들이고, 魏晉以後 문학작품속에서는 聲調의 조화를 통한 音樂美를 詩에 운용하여 節奏感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中國 古典文學 史上 실제로 詩文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상도, 이 漢字의 특성 때문에 산문보다는 詩에서 美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中國人의 文章觀의 결과일 것이다.

둘째, 漢字의 單音節語의 특성을 살려 무궁한 造語力과 語素의 分合을 자유로 조절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니고 있다. 글자마다 가진 독립적인 形·音·意 3요소는 자유로이 조화 발전하여 무궁한 어휘를 창조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漢字는 400여개의 字素가 효율적인 결합을 통하여 4만 자가 훨씬 넘는 글자를 형성하며, 또한 4만 여자

3) 許世旭 《中國文化叢說》, p.52 참조.

4)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采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鍾鼓樂之.

이 시를 보면, 첫째 모든 구절이 4언이란 기본 구조로 되어있고; 둘째 진하게 표시된 字가 用韻字이며; 셋째 ___을 친 글자는 疊字이며; 넷째 '窈窕'는 疊韻字이며; 다섯째, '參差'·'輾轉' 등은 雙聲字이고; 여섯째 '荇菜'·'左右'·'琴瑟'은 비슷한 모양 또는 같은 部首의 글자들을 使用한 것이다.

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하여 무궁무진한 語彙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위에서 字素의 결합의 예는 六書를 설명하면서 살펴보았으므로, 語彙의 組合에 관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學」字는 學習, 學歷, 學士, 學者, 學分, 學期, 學問, 學科, 學派, 學徒, 學院, 學藝, 學識, 學費, 學會…… 등의 수많은 語彙를 파생시킨다.

셋째, 漢字가 지니는 함축성(즉 一字多義性)이다. 漢字의 「多義性」은, 漢字가 문 장안에 있을 때에, 그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文章이 명백한 설명을 요구하는 散文에서는 심각한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을 최대한으로 절약시키면서도 많은 뜻을 담을 수 있는 詩에서는 도리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시인이며 문학비평가인 윌리엄 엠프슨(Willam, Empson, 1906-1984)은 ambiguity(多義性)가 많은 언어일수록 詩語로서는 훌륭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한 ambiguity란 뜻은 詩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보면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뜻을 두루 생각하여 보게 되는데,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쉽사리 모를 때에 ambiguity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中國 現代 詩人 徐志摩가 쓴 〈再別康橋〉⁵⁾라는 시의 한 부분을 보면, 이 시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悄悄」라는 똑같은 글자를 두 개 포개어 놓은 말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슬프게」, 「조용조용하게」이다. 이 시구를 번역하면서 우리가 우선 「조용조용하게」라는 뜻을 취하여 해석해 보았으나 사실 「슬프게」라는 말로 번역해도 그 번역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쪽이 정면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연관되어 생각되는 것이 漢字의 多義性에서 출발하는 「함축」이다. 漢文 문장이 글자 수는 적지만, 뜻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짧은 어휘로써 심오한 내용을 담으려는 것은 문학이 추구하는 최상의 표현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으로 文字가 지녀야 하는 실용성을 감안할 때, 문장이 너무 警句나 格言으로 深化되어 가는

5) 但我不能放歌, 悄悄是別離的笙簫. 夏蟲也爲我沈默, 沈默是今晚的康橋.
悄悄的我走了, 正如我悄悄的來. 我揮一揮衣袖, 不帶走一片雲彩.

병폐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규율 적인 漢字 구성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字義習得이 용이하다. 얼핏 漢字하면 배우고 쓰기에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漢字의 意味 分類 系統 體系인 部首로서 字義를 인식하고, 聲符로써 字音を 分別하고 더 나아가서는 六書의 원칙을 이해하면 오히려 조리 정연하게 漢字의 3요소인 字形·字音·字義를 변별할 수 있는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原始 文字와 甲骨文으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된 漢字는 다른 나라 文字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書寫體系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中國은 현재 문자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 秦代에 이미 小篆으로 문자를 통일했던 것도 문자 개혁의 일종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전개된 字體의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크게 세 종류의 문자 개혁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표준어인 普通話의 보급이고; 둘째는 漢字의 簡化 운동이고, 셋째는 漢字의 拼音文字化이다. 이 세 가지 개혁 운동 가운데 표준어의 보급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漢字의 簡化 운동이다. 漢字의 簡化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繁體字의 필획을 간화시켜 보다 필획이 적은 簡體字를 쓰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漢字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과 뜻이 같지만 형태가 다른 異體字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漢字의 拼音文字化 운동은 중국의 모든 문화 유산이 漢字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반대가 심하여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漢字는 중국에서 文字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文化속에 寄生하고 成長해 온 지라, 그것의 혁명(拼音文字化)을 논한다는 것은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나 다를 바 없는 만큼 전통의 말살 여부에 귀착되는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VI. 맺음말

以上の 개괄적인 고찰을 통해서, 중국인의 漢字에 대한 전통적 관념, 漢字의 구성 원칙, 漢字 字體 발전의 일반적인 추세 및 漢字의 특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本 論文의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의 목적은 漢字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며, 중국인의 漢字에 대한 정통 관념의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漢字에 대하여 지녔던 문화적인 관념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文字란 言語를 대신하는 교제의 도구이다. 그러나 本文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漢字에 대한 관념과 漢字 自體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漢字는 단순한 교제의 도구뿐 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人文 精神이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文化」(Culture)라는 의미의 어휘가 고대 중국에서는 대부분 「文明」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예를 우리는 《周易》을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文」의 狹義의 중요한 뜻이 바로 「文字」인 것이다. 왜냐하면 文字는 共時的인 관점에서 보면, 同時代人의 美的 觀念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통시적으로는 文化 成果의 전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文」은 또한 中國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사람들의 教養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만 순수한 符號로써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특정한 문화적 가치의 부호 기능을 발양할 때만이 漢字는 그 생명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周易正意 唐·孔穎達疏 十三經注疏本 藝文 臺北 1985.
 說文解字(徐玄校定本) 許慎 中華 香港 1985.
 說文解字注 段玉裁 黎明 臺北 1974.
 說文中之古文字 商承祚 上海古籍 1983.
 漢字的起源演變論叢 李孝定 聯經 臺北 1986.
 高明小學論叢 高明 黎明 臺北 1971.
 中國文字學史(上下) 胡樸安 商務 臺北 1973.
 漢字的結構及其流變 梁東漢 新知識 北京 1959.
 中國文字學(再訂本) 龍宇純 學生書局 臺北 1984.
 原始文化與語言 楊國章 語言學院 北京 1992.
 方言與中國文化 周振鶴外 南天 臺北 1988.
 漢文化論綱 陳玉龍外 北京大 1993.
 중국언어학총론 전광진 동문선 1996.
 중국어학개론 허성도의 방통대 1995.
 한자학총론 이돈주 박영사 1984.
 중국문화총설 허세욱 신지사 1974.
 중국문화통론 이장우의 중문 1993.

論文提要

從文化觀點看漢字

鄭 鎮 控

漢字中國是人們交際的工具，是中國人民的獨特創造，是中國文化的重要組成部分。也可以說，它既是中國文化的最基本的細胞，也是傳播中國文化的重要媒介。漢字的產生意味着燦爛的中國文化的發展又進入到了一個新的階段。可以說，漢字是中國文化中一個十分重要的方面。同時，中國文化的發展也促使漢字更加豐富和細密。

通過以上鳥瞰式的考察，對於傳統有關文字方面的觀念·漢字的構成原則·漢字發展的基本趨向，以及漢字的特性，我們可以獲得一概括的認識。而本文對於這幾方面內容的處理是由上及下·漸次落實的，目的在於彰明漢字殊勝獨特之處，並且藉由中國對於文字正統看法的分析，揭顯中國古人對文字所具有的文化理念。

文字是人際溝通所使用的書面工具，然而從本文可以發現，無論就古人的看法或漢字本身的特性去看，漢字都不只是人際溝通的工具。更應強調的是，它在古人的觀念中，並未完全「神化」，乃是恰如其分地把造字者「聖化」了，其中隱然蘊含了深刻的人文精神。

現今「文化」的意義，在古代多半使用「文明」一詞，《周易》即屢屢用之；而「文」之所由明，最重要的憑藉就是狹義的「文」——「文字」，因為它可以共時地促進同時代人美的觀念的交流，也可以歷時地將文化成果傳之久遠。「文」在中國傳統的觀念中，代表的是人類的教養，在人們的社會活動中，扮演了十分重要的角色，我們不應只把它當作純粹符號，而忽略其在精神層次的價值。以具有特定精神價值符號功能的角色揆之，漢字必定能夠長存。